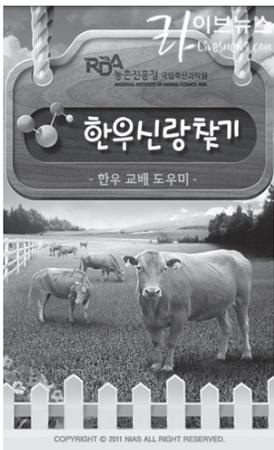


한우

한우 1등 신랑감 스마트폰에서 찾는다
농진청, 어플리케이션으로 교배정액 선택 한번에 해결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한우 교배 도우미인 ‘한우신랑찾기’ 안드로이드폰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한우신랑찾기’ 앱은 암소의 혈통정보를 이용해 농가의 개량목표에 적합한 보증씨수소 정액을 추천하는 프로그램으로 암

소의 개체번호와 그 아비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보증씨수소와의 근교계수와 각 교배조합 별로 태어날 송아지의 추정생산능력을 계산하고 등급별로 표시해준다.

농가는 도체중,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12개월령 체중 등 5개 형질별로 A등급에서 D등급까지 4단계로 표시한 보증씨수소 정액 정보를 보고 가장 적합한 정액을 고를 수 있다. 또한, 한번 입력한 암소 정보와 선택한 정액의 정보는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한우신랑찾기’ 앱은 매 호 3,000부씩 발행되는 「한우 교배조합 길라잡이」 책자나 PC용 엑셀 프로그램을 대체해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6개월마다 수행하는 국가단위 한우 유전능력 평가 결과가 바로바로 업데이트된다.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이승수 연구사는 “올해는 한우신랑찾기 앱을 활용하는 농가교육을 적극 실시해 근친교배 방지, 암소개량 등에 보탬이 되도록 앱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우신랑찾기’ 앱은 지난해 아이폰용으로는 먼저 개발되어 활용 중에 있으며, 이번에는 사용자가 더 많은 안드로이드폰용 버전으로도 개발되어 이제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앱을 사용하려면 안드로이드폰용은 안드로이드 마켓, 아이폰용은 아이튠즈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라이브뉴스 도나희기자 a1@livesnews.com

양돈

올 상반기, 돼지 900만두 전망
연말에는 FMD 이전 수준인 950만두 회복할 듯

올해 상반기에 돼지 사육두수가 900만두에 이르고, 연말에는 FMD(구제역) 이전 수준인 950만두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병모 대한양돈협회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분석하면서 2012년 협회 사업 계획과 양돈 산업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이병모 회장은 지난해 돼지 사육두수가 817만두 수준인데, 매월 15만두 정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 상반기 정도면 900만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재입식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하반기에는 증가 추세가 다소 완화돼 매월 7만~8만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연말 즈음이면 FMD 이전 수준인 950만두 가량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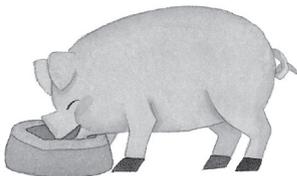
협회는 FMD 여파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를 900만두 사육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미 FTA 등 국제적인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점에서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FMD 이전 수준으로 사육규모와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전업농 규모는 평균 1400두를 넘어서 규모화 부분에서는 세계화가 됐다”며 “앞으로는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경 검역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총선 등 정치적 변수가 본격화되는 2/4분기 이후에는 돈육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기도 했다. 아울러 출하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 하락을 점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MD 백신 항체형성율이 일부 지역에서 저조한 상황과 관련, 이 회장은 모체이행항체 등의 영향으로 항체가 개선되지 않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정밀한 원인 분석을 위해 용역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5월에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kosj@agrinet.co.kr)



양계

닭질병가이드북 발간 배포 양계협회, QR코드도 본격 운용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양계인들에게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닭질병가이드 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기존의 나열식 틀에 박힌 질병책자들과 차별화를 두어 호흡기성, 소화기성, 난계대성, 종양

성, 면역억제성, 난질이상, 기타질병 등 각종 장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질병을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게 편집돼 있다.

편집위원으로는 손영호 양계수의사회장(반석가금진료연구소), 권용국 박사(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조류질병과), 윤호식 원장(장원동물병원), 윤종웅 수의사(바이엘코리아(주) 동물의학사업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대한양계협회는 최근 스마트폰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발맞춰 QR코드를 생성해 협회의 홍보동영상과 홈페이지를 연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양계협회 모바일홈페이지로 이동된다. 메인화면에 협회 홍보동영상과 홈페이지 연결 사이트 주소가 보여지며 연결 사이트 주소를 링크해 들어가면 공지사항, 협회소식, 양계소식 등 양계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wan@chukkyung.co.kr

낙농

낙농진흥회 이근성 신임 회장 취임...업무 돌입 업계 둘러싼 난관 딛고 새 도약 다짐

당면과제 해결...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 대내외적 어려움 돌파 청사진 제시 최선



낙농진흥회 제 6대 회장으로 선임된 이근성 신임회장이 지난 19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근성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의 성과는 하루 아침에 나타나지 않는이라며 낙농산업 전체가 변할 수 있도록 변화의 중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 신임회장은 “낙농산업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낙농산업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고 달성하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신임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낙농진흥회의 방만경영이 지적된 이후 최근 낙농진흥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차가워져 있다”며 “낙농진흥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함으로써 그 해법을 찾는 첫걸음을 내딛고 낙농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신임회장은 또 “낙농진흥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낙농가족들의 성원과 믿음”이라며 “낙농진흥회 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머리를 맞대

고 뜻과 정성을 다해 낙농산업을 둘러싼 모든 난관을 헤치고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 뜻과 정성을 다해 낙농산업을 둘러싼 모든 난관을 헤치고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이희영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양봉

양봉협회 신임회장에 조균환 씨 선출

조균환 한국양봉협회 신임회장을 비롯한 17대 임원진



이 선출됐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 1월 18일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2012년 제1차 대의원 총회를 열고 17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번 선거에는 조균환, 서근원, 배경수 전 회장 등 3명이 출마했고 이중 조균환씨는 총 554표의 유효투표수 중 과반수에 가까운 268표를 득표해 회장에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오용택 씨와 오만균 씨가 당선됐고 협회 이사에는 충남지회의 문상재 씨, 이영우 씨, 부산지회의 김종문 씨, 경북지회의 신상필 씨, 전북지회의 유명남 씨, 감사에는 서울의 이종택 씨와 경남지회의 이기준 씨가 선출됐다.

조 신임회장을 비롯한 17대 임원진은 지난 1월 19일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향후 3년간 양봉협회를 이끌게 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2012년도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12년도 대의원 수를 578명으로 결정했다.

농수축산신문 김동호기자 kdh0529@afline.co.kr